

遜志 洪在龜의 『息閑眞詮』 一考

신요한*

< 目 次 >

- | | |
|--------------------|--------------------|
| I. 서론 | III. 『식한진전』의 내용 구성 |
| II. 『식한진전』의 자료적 특성 | IV. 결론 |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遜志 洪在龜(1845~1898)의 『息閑眞詮』을 바탕으로 위정척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正俗新編』 이후 새로 밝혀진 홍재구의 저술에 대한 연구로, 重菴 金平默(1819~1891) 문인의 위정척사론을 정리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홍재구는 김평묵의 문인이자 사위로, 華西 李恒老(1792~1868)의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한 인물이다. 1876년 일본이 조선에게 개항을 요구하였을 때 疏首로 추대되어 개항반대 상소인 「丙子聯名儒疏」를 올렸고, 1881년 동생 勵志 洪在鶴(1848~1881)이 소수였던 「關東聯名儒疏」를 작성하였다. 김평묵은 이 상소에 추가하여 尾附疏를 지었다.

『식한진전』은 乾坤 2册에 모두 24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성리학적 통치 이념과 유교적 사회질서 등이 흔들림에 따라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坤책에 수록된 마지막 3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乾책의 8장과 坤책의 13장은 천주교 교리를 辨駁한 글이다. 본고에서 살펴볼 마지막 3장은 「聖道說」, 「衣冠說」, 「洋

* 충남대학교 도서관 사서 / yohanshin@cnu.ac.kr

物辨」으로 홍재구의 위정척사 사상의 이론적 바탕과 斥洋의 방책이 서술되어 있다.

먼저 「성도설」에서는 인간 본성의 착함 즉, 성선설을 바탕으로 인간 성품과 마음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의관설」에서는 의관은 유형이고 마음은 무형인데, 의관에 마음이 타면 유형이 된다는 점을 들어 밖으로 들어나는 의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물변」을 살펴보았다. 서양의 화륜선, 양직기, 전기등이 기이하는 하지만 이들이 조선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서 설명한다. 서양의 물건들은 천천히 하고 급히 하고, 원근의 구분을 없애버려 천리를 거스르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식한진전』의 일부분 만 살펴보았다. 천주교 교리를 비판한 나머지 21장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고, 『정속신편』과 비교 검토의 연구가 이루어지면 『식한진전』에 대한 종합적 연구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홍재구, 유기일, 『식한진전』, 『용서고』, 내수외양

I. 서론

본 연구는 遜志 洪在龜(1845~1898)의 『息閑眞詮』을 바탕으로 위정척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正俗新編』 이후 새로 밝혀진 홍재구의 저술에 대한 연구로, 重菴 金平默(1819~1891) 문인의 위정척사론을 정리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홍재구는 김평묵의 문인이자 사위로, 華西 李恒老(1792~1868)의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한 인물이다. 이항로는 「關邪錄辨」·「洋禍」 등을 통해 척사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이항로의 嫡傳인 김평묵 역시 「關邪辨證記疑」·「禦洋論」·「斥洋大義」 등을 저술하여 척사론을 계승하였다. 또한 龍西 柳基一(1845~1904)은 홍재구의 『정속신편』에 조목에 따라 評을 더하여 『正俗新編敬贊』을 저술했고, 이항로의 글 가운데 斥洋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척양록』을 편집하였다.

홍재구는 앞서 언급한 자료들 외 『啓蒙要覽』, 『衛正新書』 등의 척사서들을 저술하였다. 또한 1876년 일본이 조선에게 개항을 요구하였을 때 疏首로 추대되어 「丙子聯名儒疏」를 올려 개항을 반대하였고, 1881년에는 동생 勵志 洪在鶴(1848~1881)이 疏首였던 「關東聯名儒疏」를 작성하였으며, 김평묵은 이 상소에 추가하여 尾附疏를 지었다.

이항로의 위정척사 사상과 서양 인식은 김평묵을 비롯한 그의 문인 유기일·홍재구 등 여러 제자들에게 계승되었다. 그럼에도 김평묵 문인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홍재구의 『정속신편』 연구를 통해 시작되었고,¹⁾ 홍재구와 유기일의 저술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정리되었다.²⁾

유기일은 홍재구의 저술을 內修外攘의 차례로 보았을 때 『息閑眞詮』은 外攘에 해당하고, 『정속신편』은 內修에 해당한다고 했다.³⁾ 본고에서는 外攘에 해당하는 저술인 『식한진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息閑眞詮』은 乾坤 2冊에 모두 24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책의 8장과 곤책의 13장은 천주교 교리를 辨駁한 글이다. 곤책의 마지막 3장은 「聖道說」·「衣冠說」·「洋物辨」으로 홍재구의 척사사상의 이론적 바탕과 斥洋의 방침이 서술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위 세편을 중심으로 홍재구의 위정척사의 이론적 바탕과 서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息閑眞詮』 전체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정속신편』·『정속신편감찬』·『息閑眞詮』 등을 통해서 김평묵 문인들의 위정척사의 방침인 內修와 外攘에 대한 종합적 연구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1) 여진천(2002). 여진천(2003). 정경훈(2012). 참조.

2) 신요한(2019). 정경훈·신요한(2019). 참조.

3) 柳基一, 『龍西稿 22』(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正俗新編敢贊跋」, “遜志兄獨苦之心, 其誰能覺? 當與『息閑眞詮』, 同其廣傳也, 宜哉! 如以修攘之序言之, 則彼猶外攘, 而此爲內修.”

Ⅱ. 『식한진전』의 자료적 특성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息閑眞詮』(2책)을 저본으로 살펴보았다.⁴⁾ 『식한진전』은 2책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완본과 영본 모두 홍재구의 저술에 유기일의 評이 더해진 형식이다. 이 밖에 「讀洪遜志癸巳夏所著息閑眞詮(甲午十二月七日)」은 홍재구의 글이 간략하게 정리되고, 유기일의 글은 『식한진전』에 실린 전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이 자료들에 대한 서지적 특성과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완본과 영본의 서지사항과 차이점, 자료의 구성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息閑眞詮』을 언급한 유기일의 자료들을 통해 간행시기, 『息閑眞詮』의 의미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식한진전』의 서지사항과 구성

1) 『식한진전』의 서지사항

『식한진전』은 현재 필사본 형태로 2종이 전하는데,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종은 乾坤 2책으로 구성된 완본이고, 1종은 1책 零本이다.⁵⁾ 두 자료는 '卷首題'가 달라서, 완본은 『息閑眞詮』이고, 영본은 『息閑眞詮』이다. 表題名과 花口는 『息閑眞詮』으로 동일하나, 匡郭과 烏絲欄의 유무는 다르다. 완본은 광곽과 오사란이 있지만, 영본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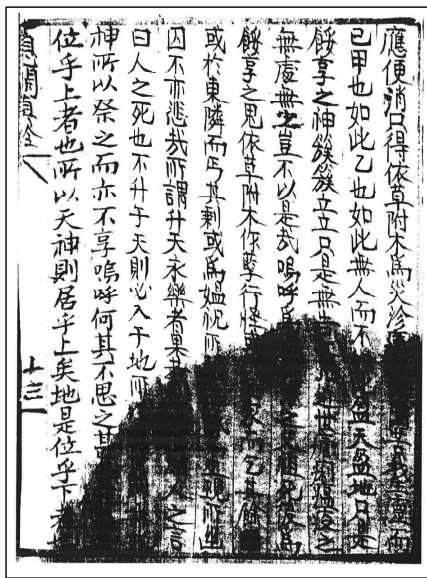
각 자료의 형태적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異本 『息閑眞詮』(零本)과 연세대학교 소장 『龍西稿 24』의 「讀洪遜志癸巳夏所著息閑眞詮(甲午十二月七日)」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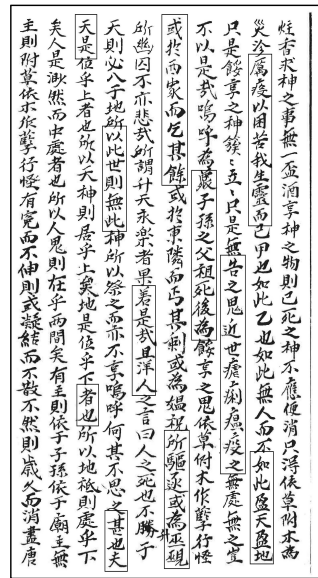
5) 신요한(2019). 참조.

	完帙本	零本
서명	『息閑眞詮』(卷首題, 表題, 花口)	『息閑眞詮』(卷首題)『息閑眞詮』(表題, 花口)
형태	2卷2册, 四周單邊, 烏絲欄, 10行字數不定, 註雙行, 上下向白魚尾, 18.5×14.5cm	1卷1册(零本), 10行字數不定, 註雙行, 31.0×19.0cm

내용은 완본과 영본의 차이는 없다. 다만, 완본 건책의 「擬諭羊人辨弗祀辨堂辨有所爲無所爲 第二」 가운데 2장이 얼룩져 글자를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홍재구가 서술한 내용으로 영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영본은 온전한 자료는 아니지만, 완본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息閑眞詮』 훼손 부분>



<零本『息閑眞詮』>

2) 『식한진전』의 구성

『식한진전』은 乾坤 2책에 모두 2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책의 세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책은 「息閑眞詮序」, 「擬諭洋人論中國聖道之所以貴 第一」, 「擬諭洋人辨弗祀辨堂猶辨有所爲無所爲 第二」, 「辨上帝天主之不同 第三」, 「辨原祖 第四」, 「辨有形無靈 第五」, 「辨天降石版十誠 第六」, 「性善說 第七」, 「論男女無別之禍 第八」까지 서문을 제외한 8편의 글이 실려 있다. 각 장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책	장	내용
乾	1	중국 聖人の 道가 귀한 이유를 설명하고, 尊中華攘夷狄의 개념을 설명
	2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을 의리로 여기는 것, 천당과 永樂, 지옥과 永苦 등 천주교의 교리에 대한 변박
	3	유학의 上帝와 서학의 天主가 같지 않음을 설명
	4	天主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辨駁
	5	서양인이 天地를 有形無靈으로 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것을 변박
	6	十誠命에 대한 변박 上三誠: 恭敬天主 (두 번째, 세 번째는 未詳이라고 하였음) 下三誠: 孝敬父母, 毋殺人, 毋邪淫, 毋偷盜, 毋妄證, 毋願他人妻, 毋貪他人財物
	7	서양의 性善과 유학의 性善을 비교하여 설명
	8	男女를 분별하지 않는 것은 禽獸의 道며, 그에 따르는 禍에 대하여 설명

곤책의 목차는 「辨三德 第九」, 「辨四樞 第十」, 「辨八端 第十一」, 「辨七克 第十二」, 「辨十四哀矜 第十二(十三)7」, 「辨七蹟救靈 第十四」, 「辨教皇神父主教 第十五」, 「辨原罪 第十六」, 「辨認主報主 第十七」, 「辨永苦永樂 第十八」, 「論天道之福善禍淫 第十八(十九)」, 「辨三仇 第十九(二十)」, 「辨降生救贖三位一箇 第二十(二十一)」, 「聖道說 第二十一(二十二)」, 「衣冠說 第二十二(二十三)」, 「洋物辨 第二十三(二十四)」이다. 모두 16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6) 金致振(商人, 號 默庵, 1822~1869)의 『斥邪論』과 지금 천주교의 십계명을 참고하여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呼天而毋妄發虛誓[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세 번째는 守齋齋禮之日[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 7) 필사 중 여러 장의 차례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용서고』에 실린 「讀典遜志癸巳夏所著息閑眞詮(甲午十二月七日)」에 기록된 표기와 대조하여 괄호 속의 번호로 필자가 수정하였다. 이후에 장 표시는 수정한 순서를 따르고자 한다.

책	장	내용
坤	9	천주교 三德 교리에 대한 변박 (信: 믿음, 望: 소망, 愛: 사랑)
	10	천주교 四樞德 교리에 대한 변박 (智: 예지, 義: 정의, 勇: 용기, 節: 절제)
	11	천주교 眞福八端 교리에 대한 변박 (涕泣, 受難, 信負, 良善, 嗜義, 哀矜, 心淨, 和睦人)
	12	龐迪我的 『七克』 ⁸⁾ 에 대한 변박 (以謙克驕, 以舍克吝, 以潔克淫, 以忍克怒, 以淡克貪, 以仁克妬, 以勤克怠)
	13	十四哀矜에 대한 변박 (形哀矜: 食飢, 飲渴, 衣裸, 羸病囚, 舍旅, 贖擄, 葬死) (神哀矜: 勸善, 誨蒙, 慰患, 責罪, 赦侮, 恕過, 爲死者祈天)
	14	七聖事に 대한 변박 (飭洗, 告解, 堅振, 聖體, 終傳, 神品, 婚配)
	15	교계제도에 대한 변박 (敎皇, 主教, 神父)
	16	인간이 지은 원죄[善惡果] 내용에 대한 변박
	17	하느님을 이해하고 하느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교리에 대한 변박
	18	永苦[地獄]와 永樂[天堂]에 대한 변박
	19	선을 하면 福이이 쌓이고 나쁜 일을 하면 禍를 얻는다는 것을 설명
	20	영혼의 세 가지 怨讎(魔鬼, 世俗, 肉身)라고 말하는 교리에 대한 변박
	21	降生救贖과 三位一體의 교리에 대한 변박 (三位一體: 聖父, 聖子, 聖靈[靈])
	22	사람 性品の 善함을 바탕으로 心과 性を 설명하고 학문에 대하여 논함
	23	衣冠의 중요성을 성현들의 말씀을 통해 설명
	24	서양 물건의 폐해와 서양 물건을 물리칠 방법에 대하여 설명

건책 8장 전체와 곤책의 9~21장까지 총 21장의 글들은 천주교 교리를 辨駁한 내용이다. 곤책 22~24장은 위정척사의 이론적 기반에 해당하는 聖道衣冠에 대한 내용과 서양 물건을 이용하지 않으면 서양인들이 조선에 오지 않을 것이라며 洋物(洋藥, 火輪船, 洋織機械, 電機燈 등)을 물리칠 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8) 『七克大全』의 略稱으로, 저자는 스페인 출신의 예수회 신부 판토하(D. Pantoja, 龐迪我, 1571~1618)다. 죄악의 근원이 되는 일곱 가지 뿌리와 이를 극복하는 일곱 가지 德行을 다룬 일종의 修德書이다. 1614년에 중국 북경에서 7권으로 간행된 이래, 여러 권 판을 거듭하였고, 『天學初函』 총서에도 수록되었으며, 이를 상·하 2권으로 요약하여 『七克眞訓』이라는 책명으로도 간행되었다.

(가톨릭사전 참조 http://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3573&keyword=%EC%B9%A0%EA%B7%B9&gubun=01 [검색일: 2020.12.16.]

『식한진전』은 「讀洪遜志癸巳夏所著息閑眞詮(甲午十二月七日)」과 유기일의 跋文 성격의 글을 통해서 홍재구의 저술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더욱이 『식한진전』의 各章各條 말미에는 유기일의 「讀洪遜志癸巳夏所著息閑眞詮」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유기일의 『정속신편감찬』⁹⁾에도 보이는데, 유기일은 홍재구의 『정속신편』 뒤에 論評을 덧붙여 『정속신편감찬』이라 하였다. 『正俗新編』과 『正俗新編敢贊』이 모두 전해지는 것과 달리, 『식한진전』은 유기일의 글이 함께 실려 있는 자료만 전해지고 있다. 이 밖에 「讀洪遜志癸巳夏所著息閑眞詮」은 『용서고』에 별도로 수록되어 있다.

2. 『식한진전』의 편찬과 의미

1) 『식한진전』의 편찬

『식한진전』은 홍재구가 1893년에 저술하였다. 『식한진전』의 서문과 유기일의 글을 통해 甲午(1894)年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龍西稿』의 「讀洪遜志癸巳夏所著息閑眞詮(甲午十二月七日)」을 통해서 1893년 홍재구가 저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유기일이 홍재구가 저술한 『식한진전』을 읽고 쓴 글이다.

魚丈이 물었다.

“일찍이 丈席[선생님]께서 지으신 책 가운데 『식한진전』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책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지은 신 것입니까?”

“이 책은 손지 홍재구와 함께 저술한 것으로, 서양학을 물리쳐야함을 오로지 주장하고자 지은 것이다.”

선생이 대답하셨다.¹⁰⁾

9) 신요한(2019). 참조.

10) 柳基一, 『龍西稿』(신성문화사), 「魯高語錄 三」, “魚丈問: ‘曾聞丈席所著中, 有册名『息閑眞詮』者云, 此果何爲而作也?’ 先生曰: ‘此與遜志共述, 專主闢西洋學而作也.’”

인용문은 『龍西稿』 가운데 「魯高語錄 三」의 내용이다. 「노고어록」은 유기일이 노고산 정상에서 삼년간 侍墓 중에 제자들과 문답을 기록한 것으로, 『식한진전』에 대한 문답이 보인다. 『식한진전』은 오로지 서양학을 물리쳐야함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본래 홍재구의 저술이나 유기일의 글이 첨부되어 있으니 공동의 저술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음은 홍재구의 「筆誅」의 내용이다.

陰을 억누르고 陽을 붙들어주며, 中華를 높이고 夷狄를 물리치며, 聖道를 호위하고 邪說을 끊어버리며, 禽獸를 몰아내고 人民을 구제하는 것이 經傳을 배우는 첫 번째 의리가 아니겠는가!¹¹⁾

인용문은 桂田 申應朝(1804~1899)가 和倭和洋의可否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내용 중에 등장한다. 「抑陰扶陽, 尊華攘夷, 閑聖息邪」 등의 구절을 통해서 홍재구의 위정척사 의식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특히, 「閑聖息邪」는 聖道를 호위하고 邪說을 끊어버린다는 의미로, 『식한진전』의 저술과 관련이 깊다. 이는 「식한진전서」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가한 날에 사람을 심하게 迷惑하는 천주교의 교리를 가지고 간략히 辨明을 더해 『식한진전』이라 이름하고 동지들과 강론하고자 하니 서양인들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겠는가? 비록 그러나 내가 이것으로써 죽게 되더라도 전혀 마음에 서운함이 없을 것이다. 서운함이 없으면 그만이니, 다시 무엇을 바라겠는가? 永曆紀元後 五周甲午(1894) 2月 庚辰日 無名子是 序하노라.¹²⁾

11) 이 자료는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는 유기일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박민영 박사의 복사 소장본이다. 현재 후손이 보관하던 자료는 화재로 모두 소실되었고 박민영 박사 복사 자료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하의 자료는 '개인소장본'이라고 표기한다. 『龍西稿』(개인소장본), 「讀遜志筆誅(乙未六月十七日)」, 「抑陰扶陽, 尊華攘夷, 閑聖息邪, 驅獸逐民, 非經傳開卷第一義乎!」

12) 柳基一, 『息閑眞詮』, 「序」, 「暇日, 所彼說之惑人甚者, 畧加辨明, 號曰『息閑眞詮』, 欲與同志者講焉. 洋人其不以仇讐處我乎? 雖然, 我以是滅死, 萬萬於心無憾焉. 無憾斯已矣, 復何求焉? 永曆紀元後五周之甲午二月庚辰無名子序.”

저자는 서양을 배척하고 성인의 도를 지키고자 동지들과 강론하려는 의도로 『식한진전』을 저술한 셈이다. 이는 앞서 유기일의 언급과 일맥상 통한다.

2) 『식한진전』의 의미

홍재구가 1893년에 『식한진전』을 저술하였다는 기록은 「讀洪遜志癸巳夏所著息閑眞詮(甲午十二月七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모든 章과 條目에 논한 바로서 遜志 學力의 深邃와 仁術의 周密을 볼 수 있다. 견식이 고명하고 언론이 상세하여 節節이 통쾌하니 다시 더할 것이 없으니, 불초한 나는 진실로 감히 한 마디 말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문과 원본에 의거하여 삼가 한 통을 기록하고 왕왕 章句 사이에 간략히 警說을 두어 줄 더 써서 章마다 뜻이 같고 조목마다 가르침을 듣는 작은 정성을 드러냈다. 심지어 큰 강령과 요지, 은미한 말과 격언은 터럭만큼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 마디 말도 덧붙일 수 없으니, 보는 자가 자세히 잘 살펴볼 것이다.¹³⁾

유기일은 발문의 형태로 홍재구의 『식한진전』에 의미를 평가하는데, 견식은 고명하고 언론은 상세하며 구절마다 통쾌함이 느껴질 정도이다. 따라서 터럭만큼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마디 말도 덧붙일 수도 없다는 언급은 결코 빈말이 아닌 셈이다.

또한 「讀遜志彙算一(乙未六七七日)」에는 이항로와 김평목 문인들의 斥邪 관련 저술이 보인다.

하나, 斥洋文字를 간행한 일.

이항로의 『闢邪錄』, 김평목의 『闢邪錄辨』, 홍재구의 『息閑眞詮』과 내[유기일]

13) 柳基一, 『龍西稿 24』(연세대 소장본), 「讀洪遜志癸巳夏所著息閑眞詮(甲午十二月七日)」, “以上諸章諸條之所論, 可見遜志學力之深邃仁術之周密也. 見識儘高明, 言論儘詳悉, 節節痛快, 蔑以復加, 如余無似, 誠不敢有一辭之贊. 故依文按本, 謹錄一通, 而往往章句之間, 略題警說數行, 以見逐章同聲逐條開命之微忱耳. 至如宏綱大旨, 微辭格言, 不惟不能有毫髮之移動, 亦不能有片言之敢贅, 覽者詳之. 永曆五甲午臨月己未儒州柳基一書.”

가 저술한 『斥洋錄』 같은 책은 마땅히 먼저 배포할 것이고, 남은 힘이 있으면 또한 모름지기 『衛正新書』를 精選하여 간행할 것이다.¹⁴⁾

이항로는 『關邪錄』을 저술하고, 김평묵은 『關邪辨證』을 저술하며,¹⁵⁾ 홍재구는 『息閑眞詮』을 저술하고 『衛正新書』를 편찬하며, 유기일은 『斥洋錄』을 저술한다. 이는 이항로를 필두로 김평묵·홍재구·유기일까지 화서학파의 척사서 저술의 계승양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끝으로 「正俗新編敢贊跋(1895)」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용서고』에 수록된 자료이다. 여기에는 유기일이 『식한진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난다.

『정속신편』을 공손히 한번 읽어보니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다. 애 참으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책이다. 손지 형이 홀로 고민했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식한진전』과 더불어 널리 전해야함이 마땅하다. 修攘(內修外攘·필자)의 차례로 말한다면 저 책(『식한진전』: 필자)은 외양일 것이고, 이 책(『정속신편』: 필자)은 내수라 할 것이니, 선후를 아는 자는 진실로 안을 중시하고 밖을 경시할 수 없고, 또한 말단을 먼저하고 근본을 나중하지 않을 것이다.¹⁶⁾

유기일은 『정속신편』과 『식한진전』을 內修와 外攘의 관계로 인식하는데, 이는 화서학파의 내수외양론을 계승하는 한편 성리학의 이분법적 사상논리를 표현한다.

다음 자료는 「讀某友開喻我國染邪教者文」 일부로, 우리나라가 사교에 물드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某友가 쓴 글에 유기일이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형태이다.

14) 柳基一, 『龍西稿』(개인소장본), 「讀遜志彙算一(乙未六月七日)」, “一斥洋文字印行事. 如華翁『關邪錄』, 重卷『關邪辨證』, 遜志『息閑眞詮』, 及鄙人所述『斥洋錄』, 當先刊布, 有餘力則『衛正新書』, 亦須精選而刊行矣.”

15) 『關邪錄』→『關邪錄辨』, 『關邪辨證』→『關邪辨證記疑』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 柳基一, 『龍西稿 22』(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正俗新編敢贊跋」, “正俗新編, 盍讀一遍, 不覺喟然. 噫, 眞此世所不可無之書也. 遜志兄獨苦之心, 其誰能覺? 當與『息閑眞詮』, 同其廣傳也. 宜哉! 如以修攘之字言之, 則彼猶外攘, 而此爲內修, 所知先後者, 固不得重內輕外, 而亦不應先末後本也歟.”

① [某友] 우리나라에서 입고 먹으면서 서양의 君長에게 충성을 다하고, 우리나라에서 호흡하면서 서양의 師長을 복종하고 섬기니 이것이 어찌 말이 되는 것인가. 대개 서양은 그 땅으로 말하면 서쪽의 편벽된 곳이며 어둡고 그늘진 세계이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매양 볼 수 없는 천당과 지옥을 주장하고 볼 수 있는 선악과 상벌을 주장하지 않으며, 매양 간사하고 편벽된 음란함을 주장하고 바르고 커다란 禮義와 綱常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 기질은 태양이 바야호로 떨어진 기운을 받았다. 그래서 매양 저급한 技巧을 궁구하고 道德의 高明에는 완전히 어두우니, 어찌 이것으로써 중국 옛 성인의 도를 능가할 수 있다고 하겠는가.

[柳基一] 이것이 이른바 높은 나무에서 내려와 깊은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것이니 잘 변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는가. 서양의 地勢, 風氣, 教條聞見이 어떠한지는 또한 『벽사록』과 『식한진전』 가운데 이미 자세히 다 말했으니 다시 익숙히 완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¹⁷⁾

② [某友] 이른바 천당은 누가 올라가 보았으며, 이른바 지옥은 누가 들어가 보았는가? 십리나 오리의 사이에 시장에 호랑이가 나왔다는 것을 세 번 전하는 뜬 말이 있는 것과 같다. 더구나 잡을 수 없는 형상과 가리킬 수 없는 자취를 두고 억지로 이름하여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니 이것이 믿을 만한 말인가. 죄를 지으면 頌洗하고 악을 행하면 告解하여 천당에 오르고 지옥을 모면하는 자료로 삼으니, 이른바 천당과 지옥은 악이 소굴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중화의 땅은 성인이 이어져 수천 년간 한마디 말도 갖추지 못한 것이 없고 하나의 이치도 밝지 않은 것이 없는데 천당과 지옥이라는 말은 없다. 五常으로 성품을 가히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오륜으로 職分을 닦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 근본을 깔고 멀리 선조까지 생각하는 것을 지극한 가르침으로 삼고 남녀유별로 대의로 삼으니 서양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상반되는 것이다. 곧 금수처럼 꿈틀대는 生靈과 장님·귀머거리 같은 초목의 生靈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17) 柳基一, 『龍西稿』(개인소장본), 「讀某友開喻我國染邪教者文」, “況服食吾東之水土. 而所盡忠. 則於西洋之君長也. 呼吸吾東之天地. 而所服事. 則於西洋之師長也. 此豈可成之說乎! 蓋西洋. 以其地則西極之偏地. 幽陰之世界. 是以其教. 每主乎不可見之堂獄. 而不主乎可見之善惡賞罰. 每主乎邪僻之淫泆. 而不主乎正大之禮義綱常. 其氣則稟太陽方墜之氣. 是以每究乎污下之技巧. 而全昧乎道德之高明. 豈可以是以而駕馭中國古聖之道哉? 是所謂下喬木而入於幽谷者也. 不善變. 孰甚於此? 西洋地勢之如何. 風氣之如何. 教條聞見之如何. 亦於『關邪錄』. 『息閑真詮』之中. 已詳且盡. 可更熟玩.”

가히 슬프도다.

[柳基一]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어리석음을 일깨우고 의혹을 분별하는 至訓과 大略은 이미 華翁(이항로)의 『벽사록』에 자세하고, 문인들이 계승하여 말한 것은 또 『벽사변증』과 『식한진전』 등이 있어 매우 상세하고 빠짐이 없으며 發明이 많으니 마땅히 차례로 익숙히 완미해야 할 것이다.¹⁸⁾

① 우리나라는 禮義와 綱常 및 道德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서양은 음란과 기교에 빠져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성인의 도를 숭상하는 우리를 능가할 수 없음을 자명하다. 유기일은 서양에 대한 모든 긍정은 『벽사록』과 『식한진전』에 상세하다며 읽어보기를 권하고 있다.

② 천당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다. 천당과 지옥은 중국 성인들의 말과 이치에 따르면 있을 수도 없고, 頌洗나 告解와 같은 방법으로 천당에 오르고 지옥에 모면한다는 말은 악의 소굴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한다. 유기일은 이항로의 『벽사록』·김평목의 『벽사변증』·홍재구의 『식한진전』에 상세하니 읽어보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밖에 「讀遜志彙算(乙未六月七日)」를 비롯하여 「讀遜志雜錄(乙未六月五日)」·「讀遜志所題用夏變夷之方(乙未六月六日)」·「讀遜志雜錄(乙未六月十日)」·「讀遜志筆誅(乙未六月十七日)」 등은 서양의 학문과 천주교에 대한 비판, 尊華攘夷 등에 대한 홍재구와 유기일의 사상적 편린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홍재구의 저술을 보완하는 자료이자, 홍재구와 유기일의 학문적 교류의 실상을 보여준다.

18) 柳基一, 『龍西稿』(개인소장본), 「讀某友開喻我國染邪教者文」, “所謂天堂者, 何人升而見之, 所謂地獄者, 何人入而觀之也? 十里五里之際, 猶有三傳市虎之浮言, 而況於無形可捉, 無跡可指, 而強爲之名, 號曰天堂, 號曰地獄, 此豈可信之說耶? 而況於有罪而頌洗, 有惡而告解, 以爲升天免獄之資, 則所謂天堂, 非惡之窩主而何哉? 華夏之地, 以聖繼聖, 累數千年, 無一言之未備, 無一理之不明, 而無天堂地獄之說焉. 以五常爲性之不可不復, 以五倫爲職之不可不修, 以報本追遠爲至教, 以摯別男女爲大義, 而西洋之教, 一切與之相反, 則非禽獸爾蠢動之生靈, 替龔爾林蔥之生靈而何哉? 可哀也哉! 天堂地獄, 疑愚辨惑之至訓大畧, 已悉於華翁『關邪錄』, 而門人之繼此而爲說者, 則又有『關邪辨證』·『息閑眞詮』諸書, 頗詳且盡, 發明儘多, 正宜次第熟玩.”

Ⅲ. 『식한진전』의 내용 구성

홍재구는 『식한진전』 「序」에서 이 책을 짓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한번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대수롭지 않은 듯이 예의를 폐기하니, 사람으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모두 사라졌다. 대개 그 말한 것은 속이지 못할 것이나 평범한 사람이 유혹되고 빠져들어 이 말로 하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천주교에 깃발을 세운 자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어 지금은 온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으니, 이것이 仁人과 志士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겠는가.¹⁹⁾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예의가 사라짐을 통탄한다. 예의는 유교의 윤리이자 사회질서의 근간이다. 더욱이 예의는 사람으로 사람이 되는 이유이니, 예의가 없는 사람은 금수와 다를 바 없다. 이는 천주교가 확산하면서 예의가 붕괴된 당대 현실에 대한 우려이자 탄식이다.

따라서 『식한진전』의 「聖道說」과 「衣冠說」에서 홍재구가 주장하는 위정척사의 이론적 기반²⁰⁾을 살펴보고, 「洋物辨」에서 서양 기술의 폐해와 斥洋을 위한 대책을 통해서 홍재구의 서양 인식을 알아보도록 한다.

19) 柳基一, 『息閑眞詮』, 「序」, “一自洋教之入也, 廢棄禮義, 如茶飯然, 人之所以爲人者, 掃地盡矣. 蓋其所以爲說, 雖不可欺, 匹夫匹婦, 誘之惑之, 漸之濡之, 莫不以是說焉, 則寧不有櫛櫛於彼者乎? 所以一而十, 十而百, 至於今日, 則殆若舉世之同然, 此非仁人志士之痛哭而隕涕者乎!”

20) 본고에서는 「성도설」, 「의관설」을 중심으로 홍재구의 위정척사의 이론적 기반을 살펴 보았다. 건책의 첫 번째 장인 「擬論洋人論中國聖道之所以貴」를 통해서도 위정척사의 기본 바탕이 되는 尊華攘夷에 대한 홍재구의 사상을 확인 할 수 있다. (『息閑眞詮』, 「擬論洋人論中國聖道之所以貴 第一」, “孔子之聖, 生民以來, 未之有焉. 孔子之事, 莫大於春秋, 而春秋之義, 則莫大於尊攘. 然則尊中國攘夷狄六字, 豈非亘古亘今不易之大義乎. 尊中國者, 尊中國之道, 攘夷狄者, 攘夷狄之行也, 是以春秋之法, 諸侯有夷禮, 則夷之夷而進於中國, 則中國之, 是以雖中土之人反乎孔孟之道, 則討之可也, 雖外夷之人, 慕乎孔孟之道, 則進之可也.”)

1. 위정척사의 이론적 기반

1) 「聖道說」

이항로는 19세기 조선의 대내외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성리학의 주리론을 바탕으로 正學인 성리학과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자 했으며, 성리학 이외의 다른 종교나 사상들을 邪學으로 규정하고 배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항로의 문인들은 위정척사 이론을 계승하였던 바, 홍재구도 대표적인 인물이다.²¹⁾

홍재구는 「성도설」에서 성리학에 기반한 인간 본성과 마음을 거론한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착해서 없앨 수 없으니, 附子の 뜨거움을 없앨 수 없고 大黃의 차가움을 없앨 수 없는 것과 같다. 본성이 착하니 마음도 본래 착하다. 실제로 그러한 이치가 온전히 갖추어져 결합이 없는 것으로 말하면 본성이라고 하고, 온전히 갖추어져 결합이 없는 것이 실제로 그러한 이치를 스스로 주재하고 운행하는 것으로 말하면 마음이라 한다. 그래서 ‘허령한 것이 마음이고 진실한 것이 본성이다.’²²⁾는 이것을 말한 것이다.²³⁾

사람의 본성은 본래 착하다는 유가의 ‘性善說’을 전제로, 본성은 이미 부여 받은 온전한 것임을 말한다. 따라서 한방의 약재로 사용하는 附子와 大黃을 사례로 들어, 약재의 본연의 성질은 바뀌지 않음을 주장한다. 그런데 부자나 대황조차도 부패하거나 오래 묵어 벌레가 생기면, 본연의 성질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기 마련이다. 사람의 본성도 마찬가지다. 본성도 본래 착하지만 기질에 구속되거나 물욕에 가려지게 되면 본래의 착함을 잃

21) 정경훈(2012). 참조.

22) 『대학장구』 제1장의 小註에 나오는 내용이다. 혹자가 “明德은 ‘心’입니까, ‘性’입니까?”라고 묻자, 주자는 “‘심’과 ‘성’은 질로 구분이 있으니, 허령한 것이 ‘심’이고 진실한 것이 ‘성’이다. [心與性自有分別, 靈底是心, 實底是性.]”라고 하였다.

23) 洪在龜, 『息閑眞詮』, 「聖道說 第二十二」, “人性本善, 殄滅他不得, 如附子之熱, 殄滅他不得也, 大黃之寒, 殄滅他不得也. 性善則心亦本善. 自其實然之理全具而無缺者言, 則謂之性, 自其全具而無缺者, 能自做主宰運行此實然之理而言, 則謂之心. 故曰靈底是心, 實底是性, 此之謂也.”

어버리고 만다.²⁴⁾

또한 四端의 사례로 본성을 설명하고 인간과 금수의 차이를 언급한다.

그래서 ‘惻隱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羞惡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辭讓之心과 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²⁵⁾는 것이다. 그래서 천하 사람은 본성이 착하지 않은 이가 없으며 또 마음도 착하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중국 사람만 그러하겠는가. 비록 서양 사람도 다 그렇지 않은 이가 없다. 사람이라면 이런 것이 있지만 금수라면 없으니, 이것이 사람이 금수와 다른 이유이다. 사람으로서 이런 것이 없으면 금수와 어찌 다르겠는가.²⁶⁾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의리가 아닌 것을 보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宗廟나 朝廷을 지날 때에 엄숙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며, 일에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을 보고 옳다고 여기고 그르다고 여기는 것이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성이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이것이 바로 사람과 금수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여기에는 측은하게 여기고 저기에는 측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기질에 구속되거나 물욕에 가려져서 그러하다. 작은 것에 측은하게 여기고 큰 것에 측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기질에 구속되거나 물욕에 가려져서 그러하다. 羞惡之心과 恭敬之心과 是非之心이 모두 그러하다.²⁷⁾

24) 洪在龜, 『息閑眞詮』, 「聖道說 第二十二」, “附子, 固有熱底性. 有熱底性, 則熱底心, 亦無時而已也. 雖然, 腐敗則無熱底性, 陳久蟲蛀, 則少熱底性. 無熱底性, 則無熱底心, 少熱底性, 則少熱底心, 是氣使之然也, 可曰心性之本然哉? 大黃亦然, 人亦然. 人固有仁底性. 有仁底性, 則仁底心, 亦無時而已也. 雖然, 氣質拘之, 則不仁矣, 物欲蔽之, 則不仁矣, 非特心有不仁也, 實性有不仁也. 雖然, 是豈心性之本然哉? 如附子之腐敗而無熱底心性也, 陳久蟲蛀而少熱底心性也.”

25) 『孟子·公孫丑上』: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26) 洪在龜, 『息閑眞詮』, 「聖道說 第二十二」, “故曰: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是非之心, 非人也.’ 是以天下之人, 性無不善也. 心無不善也, 奚但中國之人然爾? 雖西洋之人, 莫不皆然. 人則有此, 而禽獸則無之, 是人之所以異於禽獸者也. 人而無此, 與禽獸奚異?”

27) 洪在龜, 『息閑眞詮』, 「聖道說 第二十二」, “惻隱於此而不能惻隱於彼者, 何也? 氣拘之也, 欲蔽之也. 惻隱於小而不能惻隱於大者, 何也? 氣拘之也, 欲蔽之也. 羞惡也, 恭敬也, 是非也, 莫不皆然.”

사단의 마음 역시 기질에 구속되거나 물욕에 가려지면 측은지심·수오지심·사양지심·시비지심이 사라지는 법이다. 그러나 이는 배우고 밝혀서 氣稟이 하고자 하는 것과 本然을 구별하며 본연의 성품을 세우고 기질이 하려고 하는 것을 억제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홍재구는 이를 위해 格物致知, 誠意, 正心, 修身의 일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일에 분별 할 줄 아는 것은 격물치지장의 일이며, 이미 분별한 것에 대하여 착한 것은 여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고 악한 것은 악한 냄새를 미워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을 성의장의 일이라고 한다. 정도를 좇아 갈 때 소홀하게 여김이 없고 항상 두려워하여 성공하는데 까지 이르는 것을 정심장의 일로 여겼고, 격물치지와 성의정심의 일을 다하여 얼굴빛과 외모에 드러나며 그 뜻을 가지런히 하는 것을 수신장의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格物致知 이전에 또 소학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소학동자는 의리에 있는 바를 알지 못하고 군자의 지도하는 것을 믿고 익힐 뿐이고 삼가 행할 뿐이다. 그래서 일에 나타나는 것이 비록 도에 나가고 덕을 이루는 군자라도 또한 그 이상 더할 수 없다. 다른 날에 이른바 誠意正心修身은 이 일이 아닌 것이 없으니 소학이 대학의 기본이 되는 이유이다. 만일 소학이 지극한 줄만 알고 대학의 窮理格物의 학문에 나아가지 않으면 평상시에 원문과 원본에 의지해도 크게 잃는데 이르지 않지만, 事變과 利害를 만나면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해서 버리고 그른 것을 옳다고 여겨서 삼가 행하는 자가 많다. 어찌 그것이 낭패스러운 도가 아니겠는가.²⁸⁾

소학에 그치지 말고 대학의 窮理格物에까지 이르러야 함을 홍재구는 강조한다. 소학에 그치면 의리를 알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28) 洪在龜, 『息閑眞詮』, 「聖道說 第二十二」, “然則格致之前, 又有小學, 何也? 曰小學童子, 不知義理之所在, 只信君子之導, 而習之而已, 謹行之而已. 是以其見於事者, 雖造道成德之君子, 亦無以加矣. 異日所謂誠意正心修身者, 無非此事, 所以小學爲大學之基本也. 若只知小學之爲至, 而不進大學窮格之學, 則平常之地, 依文按本, 而不至於大失, 至於遇事變臨利害, 則以是爲非而去之, 以非爲是而謹行之者多矣. 豈非狼狽之道乎?”

유기일은 「성도설」에서 심을 말하고 성을 말한 것과 학문을 논하고 이치를 논한 것이 모두 명백하고 자세히 다해서 조밀한 것이 물도 새지 않을 것이라고 평한다. 이러한 논리는 완전히 구비되고 견고해서 깨뜨릴 수 없어 서양을 배척하고 사도를 물리치는 단방이 될 것이라고 한다.²⁹⁾

2) 「衣冠說」

홍재구는 衣冠이 가지는 중요성을 程子和 孟子的 말 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군자는 서양의 옷, 오랑캐의 옷을 입게 되는 상황이 오면 죽음과도 바꿀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한다. 「의관설」에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洋夷의 의관이 결국은 마음까지 흩어져버리게 하니, 중화의 의관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대개 衣冠은 有形이고, 心性은 無形이다. 무형이 탄 것은 유형이고 무형에 담긴 것은 유형이다. 유형이 무너지면 무형은 흩어지고, 유형이 기울면 무형은 잃는다.³⁰⁾

의관은 겉으로 드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다. 이 무형이 유형에 의지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 의관이 무너지거나 기울어지지 않아야 함을 말한다.

혹자가 물었다.

“중국이 중국이 되는 이유는 五常과 五倫의 가르침을 닦기 때문이고, 夷狄이 이적이 되는 이유는 오상과 오류의 가르침을 폐하기 때문이다. 비록 이적이라도 진실로 오상과 오류를 닦아서 밝게 한다면 이적이지만 중국이 되는 것이니,

29) 柳基一, 『龍西稿 24』(연세대 소장본), 『讀洪遜志癸巳夏所著息閑眞詮(甲午十二月七日)』, “此篇中說心說性論學論理, 大抵皆明白詳悉, 密不泄水, 而至于此章, 則尤爲完備, 牢不可破, 蓋不止爲斥洋關邪之單方, [亦可以救得近世儒賢橫議誤入之痼瘼, 惜乎, 不及一聞於省丈也.]”

30) 洪在龜, 『息閑眞詮』, 「衣冠說 第二十三」, “蓋衣冠是有形底, 心性是無形底. 無形之所乘者有形也, 無形之所盛者有形也. 有形之敗焉, 而無形散焉, 有形之傾焉, 而無形失焉.”

어찌 반드시 중화의 의관을 본받은 후에 중국이라 말하겠는가? 비록 중화 사람이라도 만약 오류와 오상을 폐기한다면 중국이지만 이적이 되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중화의 의관을 폐한 뒤에 이적이라 말하겠는가?”

대답한다.

“이는 도를 어지럽히는 간사한 말이다. ‘밖에서 제어하여 안을 기르는 것이다.’라는 말을 어찌 듣지 못했는가?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하지 못하고 말이 순하지 못하면 일이 이르지 못 한다’는 말을 어찌 듣지 못했는가?”³¹⁾

『논어』에 나오는 ‘制於外 所以養其中, 名不正而言不順 言不順而事不成’을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말의 갈기가 있는 것을 보고 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으며,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의관을 보고 군자임을 알 수 있으며, 군졸의 복장을 보고 군졸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 말이 아무리 뛰어난 말이라도 말에 불과하며, 술개가 성품을 좇는 새일지라도 새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군자는 업신여기고자 해도 그럴 수 없고, 군졸은 공경하고자 해도 공경할 수 없는 이치가 곧 밖으로 드러난 모습에 따라서 그 성품까지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다음은 ‘冠義’와 ‘洪範’을 들어 ‘制於外 所以養其中’을 설명한다.

冠義에 “예의의 시초는 容體를 바르게 하며, 顏色을 가지런히 하며, 辭令을 순하게 하는 데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밖에서 제어하여 안을 기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夷狄과 禽獸의 옷을 입고 이적과 금수의 관을 쓰면 이른바 正容體가 과연 어떠하겠는가?³²⁾

홍범에 말하기를 五事는 貌, 言, 視, 聽, 思니 모양은 공손히 하는 것이요. 말

31) 洪在龜, 『息閑眞詮』, 「衣冠說 第二十三」, “或問: ‘中國之所以爲中國, 以其修五常五倫之教也, 夷狄之所以爲夷狄, 以其廢五常五倫之教也. 雖夷狄之人, 苟能修明倫常, 則夷狄而中國也, 何必效中夏之衣冠而後可謂之中國哉? 雖中夏之人, 如或廢棄倫常, 則中國而夷狄也, 何必廢中夏之衣冠而後可謂之夷狄哉?’ 曰: ‘此亂道之邪說也, 豈不聞制於外 所以養其中者乎? 豈不聞名不正而言不順言不順而事不成者乎?’”

32) 洪在龜, 『息閑眞詮』, 「衣冠說 第二十三」, “冠義曰: ‘禮義之始, 在於正容體 齊顏色 順辭令.’ 此非制於外而養其中者乎? 服夷獸之服, 冠夷獸之冠, 則其於所謂正容體者, 果何如也?”

은 순하게(이치에 맞게 순리로)하는 것이요. 보는 것은 분명히 밝게 보는 것이요. 듣는 것은 밝게 듣는 것이요. 생각은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恭은 엄숙함을 짓고 從은 다스림을 짓고 明은 밝음을 짓고 聰은 謀를 짓고 睿는 聖을 짓는 다고 했으니 이것이 밖에서 억제하고 그 속마음을 기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수의 입은 바를 입고 이수의 이는 바를 이면 이른 바 貌曰恭 恭作肅이 과연 어떠하겠는가.³³⁾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용모와 얼굴 빛, 말이 가지런해야 마음속에 바른 道가 길러 질 것이며, 흥범에서 말한 다섯 가지 일들이 통제가 될 때 오랑 캐나 짐승의 마음이 아닌 바른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홍재구는 맹자가 요임금과 순임금을 구별하는데 있어 의복, 언행, 행실 순으로 말한 것을 들어 의복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맹자께서 “요임금의 옷을 입고 요임금의 말씀을 외우고 요임금의 행실을 행하면 요임금일 뿐이고, 걸의 옷을 입고 걸의 말을 외우고 걸의 행실을 행하면 이것은 걸일 뿐이다.” 하셨다. 의복을 먼저하고 말을 다음에 했고, 다음에 말을 했고 행실을 뒤로 했으니 어찌 가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는가. 의복은 밖에 드러나는 것이요 행실은 안에 쌓이는 것이다. 입은 바가 걸의 옷이라면 말한 바와 행한 바가 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입는 바가 요임금의 옷이라면 말한 바와 행한 바가 가히 요임금 되는 것을 바랄 수 있다.³⁴⁾

『정속신편』 「明倫第二」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이 된 것은 덕행이 가장 중하고 언론이 그 다음이요 의복 또 다음이 된다. 비록 그러나 그 緩急의 次序로 말하면 의복이 가장 급하고 언론이

33) 洪在龜, 『息閑眞詮』, 「衣冠說 第二十三」, “洪範曰: ‘五事, 一曰貌, 二曰言, 三曰視, 四曰聽, 五曰思. 貌曰恭, 言曰從, 視曰明, 聽曰聰, 思曰睿. 恭作肅, 從作义, 明作哲, 聰作謀, 睿作聖.’ 此非制於外而養其中者乎? 服夷獸之所被, 戴夷獸之所戴, 其於所謂貌曰恭恭作肅者, 果何如也?”

34) 洪在龜, 『息閑眞詮』, 「衣冠說 第二十三」, “孟子曰: ‘服堯之服, 誦堯之言, 行堯之行, 是堯而已矣. 服桀之服, 誦桀之言, 行桀之行, 是桀而已矣.’ 先服而次言, 次言而後行, 寧可不知其故耶? 服也者, 著於外者也, 行也者, 蘊於中者也, 所服者, 桀之服也, 則所言所行之爲桀, 可知也. 所服者, 堯之服也, 則所言所行之爲堯, 可望也.”

다음이요 行事が 또 다음이 된다. 입은 바의 의복이 夷虜의 의복이면 夷虜로 인정하고 말하는 바의 法言은 작은 일이 되니 누가 다시 믿으리오. 말하는 바가 간사하고 편벽되면 사람들이 모두 邪教로 인정하고 행하는 바의 충신과 효제는 작은 일이 되니 누가 다시 믿으리오.³⁵⁾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덕행, 언론, 의복의 순서이지만 완급 순서로 말한 것 같으면 의복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한다. 때문에 공자가 효를 말할 때 法服을 가장 먼저 말하고 法言과 德行을 다음으로 했으며, 맹자도 堯 임금과 桀 임금의 분별을 말함에 옷 입음을 가장 먼저 했고, 말함을 다음으로 행실을 행함을 가장 뒤에 말했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의관설」 마지막 부분에서 군자는 차라리 죽더라도 오랑캐와 짐승의 옷을 입지 않고 오랑캐와 짐승의 관은 쓰지 않으며 이는 고금을 통해서 바꾸지 못하는 큰 의리임을 밝히고 있다.³⁶⁾

2. 서양에 대한 인식

본 장에서는 「洋物辨」을 통해 서양에 대한 홍재구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홍재구는 火輪船, 洋織機, 電機燈 등의 서양 문물과 기술을 비판하고 조선에 끼치는 폐해들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서양 세력들이 조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몰아내기 위한 방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서 홍재구의 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35) 洪在龜, 『正俗新編』, 「明倫第二」, “人之所以爲人者, 德行最重, 言論次之, 衣服又次之. 雖然, 論其緩急之序, 衣服最急, 言論次之, 行事又次之. 所服夷虜, 則人皆認之以夷虜, 所言之法言德行細故也, 誰復信之? 所言邪教, 則人皆認之以邪教, 所行之忠臣孝弟細故也, 誰復信之? 角者, 吾知其爲牛, 鬣者, 吾知其爲馬, 黃金四目者, 吾知其方相也. 鳴者, 吾其爲鷄, 吠者, 吾知其爲犬, 狂言悖說者, 吾知其狂夫也. 是故, 孔子言孝, 法服最先, 而法言德行次焉, 孟子言堯桀之分, 服堯服最先, 而誦堯誦桀次焉, 行堯行桀 後焉.”

36) 洪在龜, 『息閑眞詮』, 「衣冠說 第二十三」, “是以君子, 寧死而不被夷獸之服, 寧死而不冠夷獸之冠. 其自爲也固然, 其爲人也亦然, 其爲國天下謀也亦然, 此亘古亘今不易之大義也.”

1) 서양의 물건과 그 폐해

火輪船은 가볍고 빠르고 편리한 것이 利用厚生의 도가 이보다 더 할 수가 없고 긴절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여기에 어찌 다시 말할 것이 있겠는가? 화륜선의 용도는 도적의 병기를 실어 오고 도적의 양식을 싸서 운반할 뿐이니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³⁷⁾

서양의 화륜선은 도적의 병기를 실어 오고 도적의 양식을 운반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조선의 콩과 곡식, 깃나 布帛, 소금이나 생선이 금이나 은처럼 귀하지는 않았고 인삼이나 녹용은 다 쓰지 못할 정도였는데 금과 은과 같이 귀하게 된 것은 화륜선이 바다 萬里를 다니면서 사람 衣食의 근원이 되는 것을 도둑질하고 다니기 때문이다.

서양 사람들이 洋布, 洋紗, 洋緞을 만드는 기계가 있어 하루에 百匹을 짤 수 있으니 이것이 또한 이용후생의 도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에 이 기계를 널리 사용한다면, 어찌 집집마다 재화를 넉넉하게 두지 않으며 사람마다 돈을 넉넉하게 저축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또한 서양 사람이 이익을 독점하는 교묘한 술책이다.³⁸⁾

지금 들으니 서양 사람들이 布帛을 짤 때 하루에 百匹을 짤 수 있으니 부지런히 하지도 않고 수고로이 하지도 않고도 공적을 마친다. 공적을 마치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가로이 놀기만 할 뿐이다. 한가로이 놀기만 하면 안일한 뜻과 방탕한 마음이 이에 생겨난다. 이것은 음란한 마음을 길러 어그러진 습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³⁹⁾

37) 洪在龜 『息閑眞詮』, 「洋物辨 第二十四」, “火輪船者, 輕捷便利, 無以復加於利用厚生之道, 緊切莫甚焉, 於此, 寧復有說耶? 曰火輪船之用, 不過曰資寇兵齎盜糧而已, 於我何益之有?”

38) 洪在龜 『息閑眞詮』, 「洋物辨 第二十四」, “洋人而有洋布洋紗洋緞之機, 能一日而百匹焉, 斯不亦利用厚生之道哉? 通行於我國, 豈不家家而富有其貨, 人人而富畜其錢哉? 曰此亦洋人權利之巧術也.”

39) 洪在龜 『息閑眞詮』, 「洋物辨 第二十四」, “今聞洋人之織布帛也, 一日而百匹, 不勤不勞, 而事功告畢矣. 功既告畢, 所爲何事? 燕閒優游而已. 燕閒優游, 逸志蕩心, 於是而作矣. 是非所以長其淫心而導其悖習者耶?”

서양의 양직기는 하루에 백필을 짤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利用厚生의 道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에 홍재구는 틀을 뺏어 먹는 공교로운 술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빠른 시간에 많은 일을 하게 되면서 일하는 자들이 한가로워지며 안일해 지고 방탕한 마음이 일어나서 음란해 지기 때문에 폐습을 만든다고 했다. 곧 백성이 수고로우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착한 마음이 생기는데, 만일 백성이 편안하면 음탕해지고 그렇게 되면 악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⁴⁰⁾ 때문에 백성들은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이른바 전기등은 장차 어디에 쓸 바인지 알지 못하겠다. 만 개의 전기등이 일시에 다 켜지고 만 개의 전기등이 일시에 다 꺼지니 재주는 기이하고 기술은 교묘하다. 그 비용을 물어 보니 하루에 아주 많은 돈이 쓰인다.⁴¹⁾

전등이라는 것은 한 번에 불이 켜지고 꺼지는 기이한 것이기는 하나 그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것이다. 또 그 비용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만들어 백성들은 구렁탕이에 튀기는 상황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서양 사람들이 사람의 도를 멸망시키는 것이며 사람의 형체를 없애버리고 宗廟社稷을 전복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한다.

이와 같은 서양의 물건들이 조선에 미치는 폐해를 다행히 피해 해로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범이나 표범 등의 소굴에 들여보냈는데 요행으로 물리지 않은 것으로 괜찮다고 하며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가 아니며, 나중에 범이나 표범에게 물려서 죽지 않으면 무엇을 기다릴 것인가를 홍재구는 걱정하고 있다.

서양 사람들이 배, 수레, 전선 등을 사용하는 것은 먼 곳을 지척으로 알고 포목과 비단을 짜는데 백일동안 할 일을 하루에 다 해 버리는 것이다.

40) 洪在龜, 『息閑眞詮』, 「洋物辨 第二十四」, “民勞則思, 思則善心生, 逸則淫, 淫則忘善, 忘善則惡心生. 是以民須以勤勞爲事.”

41) 洪在龜, 『息閑眞詮』, 「洋物辨 第二十四」, “所謂電機燈者, 不知將何所用也. 萬燈一時俱舉, 萬燈一時俱滅, 才則奇矣, 技則巧矣. 問其所費, 一日萬萬錢也.”

이것은 천천히 하고 급히 하고, 원근의 구분을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사람과 집 짓는 것에 비유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사람의 머리는 위에 있으며, 창자와 허벅지는 아래에 있다. 만약 머리와 창자, 허벅지가 한 곳에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 집을 짓는 것을 보면 방 집 안에 있고 화장실은 문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니 한 곳에 있을 수 없다. 화륜선이나 전선과 같은 洋物은 머리, 창자, 허벅지가 함께 있고 방과 화장실이 같이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다.

2) 斥洋의 대책

더구나 저들이 처음 들어와 이것으로 유혹하니, 온 나라 사람들이 만약 서양 사람을 원수처럼 보았다면 저들이 어찌 감히 속이고 능멸하는 걸 방자하게 하겠는가? 저들이 오래도록 거주하며 이것을 恒業으로 삼으니 만약 온 나라 사람들이 서양 물건을 鴆毒처럼 보았다면 저들이 어찌 감히 간사하고 교활한 걸 함부로 하겠는가?⁴²⁾

서양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오는 처음부터 서양 사람들을 원수와 같이 여기고 서양의 물건들을 짐독과 같이 본다면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이 서양인과 서양 물건을 대한다면, 예를 들어 송나라 사람이 章甫를 가지고 월나라로 가서 팔려고 하는 것과 빗 장수가 절에 들어가서 빗을 팔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저 금일에 적을 토벌하는 계책은 인심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다. 인심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방법은 위를 덜어 아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다. 위를 덜어 아래를 유익하게 하는 방법은 검소함을 받들고 사치함을 혁파하여 잡된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다.⁴³⁾

42) 洪在龜, 『息閑眞詮』, 「洋物辨 第二十四」, “況彼之始入也, 以是而爲餌焉, 舉國之人, 如能視之, 猶仇敵焉, 則彼安敢恣其欺凌哉? 彼之久住也, 以是而爲恒業焉, 舉國之人, 如能視之, 猶醜毒焉, 則彼安敢肆其姦猾哉?”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요임금이 초가집과 土階로 집을 지어 살았고, 우임금은 음식을 박하게 하고 의복을 악하게 입었으며 궁실을 낮게 하였다. 곧 천자들도 이와 같이 검소하고 사치하지 않으며 비용을 줄이는데 힘썼으니 나머지 사람들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 서양을 물리 쳐야 할 것이다.

의복은 추위를 막게 할 뿐이니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것을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음식은 배고픔을 구원할 뿐이니 감미로운 것을 취하지 말아야 한 한다. 거처하는 곳은 내 몸을 병들지 않게 할 뿐이니 편안하고 태연한 것을 찾아서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했을 때 우리나라의 토산물이라도 사치스러운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서양의 기이한 재주나 교묘한 사술 등에 마음이 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자연스레 서양인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물리나게 될 것이다.

서양의 학문을 배척한다면 서양 사람까지 아울러 배척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아울러 서양 사람을 배척한다면 서양 물건까지 아울러 배척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바꿀 수 없는 대의이다.⁴⁴⁾

서양의 학문을 미워하게 되면 서양의 기술과 술법, 물건까지 함께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양을 옳다고 하며, 서양을 받아들이는 것을 모두 미워하게 될 것이다.

조선에서 위나 아래, 멀거나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집집마다 이와 같은 뜻을 강론하고 지키게 된다면 해가 가고 자손들에게 계승하여 金石과 같이 단단해지면 조선에는 서양의 물건을 팔 곳이 없어 질 것이다. 이와 같이 서양의 물건을 팔 곳이 없어지면 洋賊이 올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을 설 명한다.⁴⁵⁾

43) 洪在龜, 『息閑眞詮』, 「洋物辨 第二十四」, “大抵今日討賊之策, 慰悅人心, 爲第一急務. 慰悅人心之道, 以損上益下, 爲第一急務. 損上益下之道, 以崇儉革奢節冗費, 爲第一急務.”

44) 洪在龜, 『息閑眞詮』, 「洋物辨 第二十四」, “斥洋之學, 則不得不并斥洋人, 并斥洋人, 則不得不并斥洋物. 此不易之大義也.”

「양물변」에 언급된 화륜선, 양직기, 전기등을 통해 서양물건과 기술이 조선에 많은 폐해를 끼쳤고, 그 폐단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홍재구의 이와 같은 사상은 그의 이전 저술들인 『위정신서』, 『계몽요람』, 『정속신편』에서부터 일맥상통하고 있다. 內修外攘에서 『계몽요람』과 『정속신편』과 같은 저술은 內修의 측면으로 『위정신서』, 『식한진전』은 외양의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으로 홍재구의 저술에 대하여 각각 연구해 나간다면 화서학파의 위정척사 사상의 계승양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V. 결론

본고는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홍재구의 저술 가운데 하나인 『식한진전』의 내용을 살펴본 첫 번째 연구다. 『식한진전』은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성리학적 통치 이념과 유교적 사회질서 등이 흔들림에 따라 그 폐단을 막기 위해 지은 책이다.

2책으로 구성된 『식한진전』의 乾책의 8장과 坤책 13장은 천주교 교리에 대해 비판한 내용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제외한 「성도설」과 「의관설」, 「양물론」을 중심으로 홍재구의 위정척사의 이론적 바탕과 서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성도설」에서는 인간 본성의 착함 즉, 성선설을 바탕으로 인간 성품과 마음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그리고 四端을 통해 인간의 성품이 착하지 않음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의 마음이 기질에 사로잡히고 물욕에 가려서 온전하게 착한 성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대학의 격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의 일을 들어 해결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45) 柳基一, 『龍西稿 24』(연세대학교 소장본), 「讀洪遜志癸巳夏所著息閑真詮(甲午十二月七日)」, “苟使吾東, 無論上下遠邇, 家家而講此義, 人人而守此義, 年深歲久, 子傳孫承, 堅持如金石, 則洋物無所售矣, 洋物無所售, 則洋賊何所爲而遠來乎?”

「의관설」에서는 의관은 유형이고 마음은 무형인데, 의관에 마음이 타면 유형이 된다는 점을 들어 밖으로 들어나는 의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制於外 所以養其中’을 강조하고 있다. 밖에 들어가 보이는 용모, 얼굴 빛 등이 가지런할 때 마음속에도 바른 道가 길러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양물변」을 살펴보았다. 서양의 화륜선, 양직기, 전기등이 기이하는 하지만 이들이 조선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서 설명한다. 서양의 물건들은 천천히 하고 급히 하고, 원근의 구분을 없애버려 천리를 거스르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서양의 물건을 처음부터 원수 보듯이, 짐독과 같이 여긴다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머무르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 버릴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척양의 방책들을 「양물변」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식한진전』의 일부분만 살펴보았다. 천주교 교리를 비판한 내용과 함께 살펴본 이후 『식한진전』의 대의를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속신편』과 『식한진전』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 文獻〉

■ 자료

- 柳基一, 『龍西稿』, 개인소장본.
柳基一, 『龍西稿』, 신성문화사, 1997.
柳基一, 『龍西稿』, 연세대학교 소장본.
柳基一, 『龍西稿』,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洪在龜, 『息閑眞詮』(零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洪在龜, 『息閑眞詮』(完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洪在龜, 『正俗新編』,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소장본.

■ 논저

- 신요한(2019), 「遜志 洪在龜의 저술 연구」, 『한문고전연구』 제39호, 한국한문고전학회, 205~232면.
여진천(2002), 「『正俗新編』 解題」, 『교회사연구』 제18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3~267면.
여진천(2003), 「19세기 화서학과 흥재구의 서양 인식과 천주교회의 반응—『正俗新編』을 통하여」, 『교회사연구』 제2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31~55면.
정경훈(2012), 「遜志 洪在龜의 『正俗新編』 研究」, 『儒學研究』 제26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37~164면.
정경훈·신요한(2019), 「『龍西稿』 異本 研究」, 『民族文化』 제54집, 한국고전번역원, 213~264면.

Abstract

A Study on 『Sikhanjinjeon』 of Sonji Hong-jaegu

Shin, Yo-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ikhanjinjeon』 of Sonji Hong-jaegu. 『Sikhanjinjeon』 is the work of Hong-jaegu that was first revealed after 『JeongsokShinpyeon』. 『Sikhanjinjeon』 consists of 2 books and 24 chapters. This book refutes the Catholic doctrine that was transmitted from the West at that time. Hong Jae-gu believes that Catholicism was disturbing the Confucian social order at the time in many ways.

In this study, out of 24 chapters, the contents of 『Sikhanjinjeon』 were examined, focusing on chapter 3 of 「Seongdoseol(聖道說)」, 「Euigwanseol(衣冠說)」 and 「Yangmulbyeon(洋物辨)」。 First of all, in 「Seongdoseol(聖道說)」, human character and mind were defined based on the goodness of human nature. In 「Euigwanseol(衣冠說)」, the importance of clothing was insisted. Finally, in 「Yangmulbyeon(洋物辨)」, Western technologies are new, but they explain the harm they have on Joseon. It is revealed that the Western technology is against the reason of heaven by removing the distinction between gradual and perspective.

This study looked at only a part of the 『Sikhanjinjeon』. After examining the contents of criticism of the Catholic doctrine, we will be able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cause of 『Sikhanjinjeon』.

【Key words】 Hong-jaegu, Yoo Ki-il, Yongseogo, SikhanJinjeon, Stabilizing the government and strengthening the national defense

투고일 : 11월 20일, 심사완료일 : 12월 6일, 게재확정일 : 12월 22일

* Librarian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yohanshin@cnu.ac.kr

